

책자형 선거 공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시장선거



민
기
다
!

6

박맹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울산광역시시장선거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무소속	박맹우	남	1951.12.06. (74세)	무직	동의대학교 대학원졸업 (행정학박사)	(전)3,4,5대 울산광역시시장 (전)19,20대 국회의원(울산남구을)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 산 상 황 (천 원)					병 역 사 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561,878	335,505	226,373	-	장남:고지거부 차남:고지거부	육군병장 (만기전역)	-	-장남:육군병장 (만기전역) -차남:육군병장 (만기전역)

3. 세금납부 ·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 분	납 세 액	체 납 내 역		
		체납액 누계 (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72,703	0	0	해 당 없 음
후 보 자	6,215	0	0	
배 우 자	0	0	0	
직계존속	0	0	0	
직계비속	66,488	0	0	

4. 소명서

f 울산, 답답하시죠

불수록 속 터집니다.

산업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인구는 회복 기미가 없습니다.
 불야성의 산업단지엔 일감이 없어지며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할 시정의 활력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청년의 한숨과 자영업자의 탄식이 쌓여가도, 5천억원을 들여 공연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버스노선 개악, 흉물 스카이 워크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시민의 출입을 막고 그들만의 아성으로 변한 시청을 이대로 두어야 합니까?

f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봐도 봐도 미덥지 못한 후보 NO

공직 경력 2년이 전부인 사람, 2년 만에 정치적 신의를 버린 사람.
 울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
 지금 울산이 시장 실험할 때 인가요?

볼 때마다 미심쩍은 후보 NO

독선과 불통, 시정 시스템을 뿌리부터 흔든 사람.
 측근행정과 패거리정치, 사조직의혹 등 바람 잘 날 없는 사람.
 우리가 한번 속아 봤으면 됐지 않은가요?

보기만 해도 믿음이 가는 박맹우 YES

20년 넘게 철저하게 검증받은 사람,
 청렴과 소신 뚝심의 행정 전문가,
 위기때마다 증명된 이름, 박맹우 뿐입니다.





박맹우면, 해낸다

여기 거센 파도를 건너야 할 세척의 배가 있습니다.
선장이 단 한 번도 바다를 건너보지 못한 배.
바다를 건널 때마다 선장 마음대로 가는 배.
험한바다를 수없이 건넌 선장, 단 한 번도 항로를 이탈하지 않은 배.
어느 배에 타겠습니까? 위기에는 박맹우입니다.

박맹우가 울산 3대 혁신을 시작합니다.

시정혁신 취임과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석달안에 시정 난맥상을 바로잡겠습니다. 세금 먹는 방만한 조직을 정리하고, 측근 행정의 폐단을 근절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의 감사관을 독립시켜 행정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공무원 역량 교육 센터를 설립해 시장이 바뀌더라도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시정을 반석 위에 세우겠습니다.

경제혁신 '울산경제진흥확대회의'를 설치해 추진하겠습니다.

AGI시대 울산경제의 시대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AI산업혁신거점센터를 구축하고 울산형 반도체 소재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석유화학산업을 구조 고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복지혁신 복지의 개념을 '미래를 위한 투자' 로 바꾸겠습니다.

청년의 창업과 일자리 대책 등 청년정책을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복지의 관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저출산 대책,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 노후를 위한 정책들도 더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맹우의 마지막 소명

보수의 위기, 시정의 위기, 울산의 위기, 극복해야 합니다.
기적은 땀에서 나옵니다.
아직 촛불을 끌 때는 아닙니다.
죽은 강을 살렸던 박맹우가 있습니다.

걸어온 길

- 행정고등고시 25회
- (전)경상남도 함안군수
- (전)제3·4·5대 울산광역시장
- (전)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 (전)제19·20대 국회의원
- (전)새누리당 사무총장
- (전)자유한국당 사무총장